

일부 농촌 지역 흡연 여고생의 식생활 특성 및 흡연과 관련된 요인 조사

임우경, 김선효,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최근 여자 청소년의 흡연률이 증가함에 따라 여자 청소년의 흡연과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10대 여자의 흡연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장차 어머니로서 2세의 성장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집단의 흡연은 심각한 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흡연 여고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식생활 특성을 파악하고, 흡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냄으로써 이들 집단을 위한 영양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case-control study로서 조사대상자를 흡연군과 비흡연군으로 나누어, 설문지법에 의하여 두군간의 식생활 태도, 일반환경 및 건강관련 요인과 다른 사람의 흡연에 대한 반응 등을 비교하였다. 흡연군은 하루에 담배를 5-10개피 이상 피우며 흡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비흡연자는 담배를 피운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조사 대상 여고생의 흡연률은 11.6%이며, 흡연자중 50% 이상이 중학교 저학년때부터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식생활 태도를 비교해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음주 비율 ($p<.001$)과 평균 음주 횟수 ($p<.001$)가 높으며, 탄산음료 ($p<.001$)와 커피 ($p<.001$) 섭취량이 많았다. 또한 흡연자의 경우 아침 결식률이 높고 ($p<.001$), 끼니별 식사의 양이 균등하지 못한 경향이였다. 또한 두군간에 일반환경을 비교해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자취, 하숙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사는 비율 ($p<.001$)과 흡연하는 남자 친구($p<.001$)와 흡연하는 여자친구 ($p<.001$)를 사귀는 정도와 학교에서의 성적 ($p<.01$), 부모의 자녀 성장 및 건강에 대한 관심도 ($p<.001$)도가 낮고 가족 형태도 양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정상가정의 비율 ($p<.001$)이 낮았다. 그리고 흡연군은 부모님의 훈육 태도가 엄격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p<.001$), 가족의 흡연률이 높아 아버지 ($p<.001$), 어머니 ($p<.001$), 형제 자매의 흡연 빈도가 비흡연군보다 모두 높았다. 특히 흡연군의 경우 남자 형제 ($p<.05$)보다는 여자 자매의 흡연 ($P<.001$) 여부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흡연에 대한 반응은 흡연군이 비흡연군보다 어른 ($p<.001$), 미성년 남학생 ($p<.001$), 미성년 여학생 ($p<.001$), 학교에서의 선생님 ($p<.001$)의 흡연, 공공 장소에서 옆 사람 ($p<.001$) 및 임신부의 흡연 ($p<.001$) 등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흡연과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지식은 두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여고생의 흡연이 보편화되고 흡연 시작 연령이 조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해주며, 흡연 여고생의 식생활이 불량하고, 여고생의 흡연에 대한 자신의 평가, 부모님의 관심도와 가족, 특히 여자 형제의 흡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고생의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 중등학교 이전에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하여 흡연의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줌과 함께,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여자 청소년 흡연자의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영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